

제 목 :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성경말씀 : 마가복음 10 : 13 ~ 16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를 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이복잡한 중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가?” 하고 꾸짖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분히 여기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며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린아이들이 (1~2세 쯤 되는 아이들)  
을법도 모르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현금도 하지 않고,  
그저 돌봐주기나 해야 할 번거로운 대상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도 어른들과 같은 한 영혼을  
가진 존귀한 생명체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아시고  
기쁘게 맞아주시며, 오히려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며  
축복하신 일에 어린아이들의 좋은 점들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 순수(純粹)함이다.

어린아이는 죄악에 오염되거나 더러운 것이 없이 그냥 깨끗  
하다. 아장아장 걷는 모양이나 방긋방긋 웃는 해맑은 얼굴 등  
썩은썩은 잠자는 모습은 천하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깨끗함이며 그야말로 천사들과 같다.

둘째, 욕심이 없다.

필요한 것을 찾음은 욕심이 아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찾고  
분수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이 욕심이다.  
어린아이들의 욕심은 기껏해야 두 손에 감아 쥐는 정도이지  
어디다 숨기면서 더 쌓고 또 쌓으며 자기만 누리려는

욕심이 없다. 물욕(物慾), 정욕(情慾), 사욕(私慾) 등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이 없이 먹고 입고 자는 것으로 족하다.(딤후6:7~12)

셋째, 단순하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 2중 3중으로 추측하여  
확대하지 않고, 말과 행동 사건들 그대로를 깨끗하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밥 먹어라”하면 아 밥 먹으라 하는구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왜 밥 먹으라고 했을까? 미운아이 딱 하나  
더 주라 했는데 나를 미워해서 밥 먹으라고 했을까? 아니면  
내 밥에 안 좋은 약을 넣고 먹으라고 하는가? 밥을 많이 해서  
남으니까 처치하려고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가? 추측의 나래를  
퍼거나 오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며 깨끗하게 받아들인다.

넷째, 좋은 감정으로 회복이 빠르다.

어린아이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꾸중을 듣고 영뎡이를 맞았다.  
한 시간도 못가서 웃으며 엄마 아빠에게 안기고 재롱을 부린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가? 몇날 며칠을 분한 맘을 가지고 생각  
하며 되 뇌이고 몇 년을 가도 회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감정으로 회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고 복을 주시며 자신도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된다.

다섯째, 부모를 알아보고 따른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따른다. 부모가 나이가 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지식적으로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냄새, 부모의 숨결, 부모의 목소리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느끼며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다.

부모가 아닌 사람은 따르지 않고 멀리하며, 부모가 안 보이면  
엄마 아빠를 찾으며, 찾을 때까지 울면서 애를 쓴다.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품에 안기어 평화를 누리고 편히 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요10:27).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좋아하며  
본능적으로 믿고 따르며 배운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성품  
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하늘나라,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눅17:20-21, 마12:28)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 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본문 말씀 요약 ( 5 / 12 ) 2013

제 목 :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사람

성경말씀 : 누가복음 18 : 9 ~ 14

어떤 사람을, 사람 자신들이 아무리 의롭게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옳게 보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주시길 바라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주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가 중요하며 그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

< 스스로 옳게 여기는 사람 = 하나님께서 인정 안하심 >

이 사람은 자부심을 가질 만큼 잘한 것이 많이 있었다.

- 1) 토색하지 아니했다 :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얻지 아니했다.
- 2) 불의하지 아니했다 :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의롭게 행했다.
- 3) 간음하지 아니했다 : 몸의 정절을 지켰다.
- 4) 세리와 같지 아니했다 : 권력과 물질에 아부하지 아니했다.
- 5) 이레에 두 번씩 금식했다 : 자신을 다스려 경건생활 했다.
- 6) 십일조를 드렸다 :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겼다.

잘못한 일.

- 1) 스스로 옳게 여겼다 :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롬3:20)
- 2)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잠16:18)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한 것이다.(잠14:31)  
이 사람은 도덕적 율법적으로 잘한 일이 있었어도, 근원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 =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

- 1)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 겸손히 낮아졌다.
- 2) 다만 가슴을 치며 : 죄를 깨닫고 원통히 여겨 회개했다.
- 3)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 4) 죄인임을 고백했다 : 하나님께 심판과 사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한 것이다. 이리므로  
엄연한 죄인임에도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1) 잘 한 것이 있어도 그걸 내세워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 2)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 3) 위선에서 벗어나 솔직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목사부터 회개합니다.

첫째, 종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목사는 성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며  
주님께서 피 값 주고 사신 몸 된 교회와 맡겨주신 성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잘 알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목사가 너무 앞서나가다 보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회의 어떤 절차나 논의들을  
생략하여 본의 아니게 당회원이나 교우들을 무시한 일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이 일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낮아져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둘째, 강함을 회개합니다.

저에게는 약간의 강인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이 어려움과  
난관을 돌파하는 데는 일정부분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평상시에는 독선적인 것이 되어 장로님들과 여러 교우들 마음  
을 힘들고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좀 더 온유 겸손하게 낮아지겠습니다.

셋째, 원만치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언어사용이나 행동에 있어서 적절하고 원만하게 했어야 되는데  
말과 행함에 실수가 있어서 교우들에게 오해가 일어나게 하고  
교우들끼리 설왕설래하게 되어 불신을 가져오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하고 장로님들과 여러 교우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너그려이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넷째, 대책.

- 1) 진리와 생명운동을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하겠습니다.
- 2) 교회의 제반사항들은 반드시 당회의 의결을 통한 것만 진행  
하도록 할 것이며 제직회에서 논의한 것만 이뤄질 것입니다.
- 3) 교회 일은 당회, 제직회, 각 부서에 맡기고 기도와 말씀선보,  
심방에 전념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정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34 (새 찬송가 2, 10)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 ◎ 예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 ◎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여 !
-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세리와
- ◎ 같이 많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 금식하고
-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 ◎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 아 멘 -

찬 송 : 337 (새 찬송가 279)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누가복음 18 : 9 - 14 신약 126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사람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16 (새 찬송가 294)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익남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 섬기는 사람들 [ 5 월 안내 ]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렬

여, 오경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강복희 집사 (다음 조상희 집사)

기 도 : 김태용 집사 (다음 최순덕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윤정희 집사 (다음 이성혁 집사)

기 도 : 이성숙 집사 (다음 최순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문정용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후 3시 30분 ) 김정환 장로

청년이며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월례 제직모임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이곳에서 5월 월례

제직모임이 있습니다. 제직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2. 화요 전도모임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 3. 수 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 4. 금 요 밤 기 도 회.

금요 밤(10일) 기도회는 한나여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종암 주택

☺ 김중호 김지영 님 하운

종암 주택



## 본문 말씀 요약 ( 5 / 19 ) 2013

제 목 :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라

성경말씀 : 요한1서 4 : 7 ~ 12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파란색이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온통 노란색이며, 검은색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주위는 온통 검은색이고, 맑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아주 맑고 밝게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주위와 이 세상이 좋게 또는 나쁘게도 보이는 것이다. 마음에, 분노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분하게 여겨지고, 미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밋게 보여 지며, 원망 불평 의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 세상은 그 사람에게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의심스럽게 보여 평화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고 고단하고 불행한 삶이 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 살기를 원하시는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이란 이름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고, “사랑”이란 이름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 살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 ?

첫째,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한 삶이되기 때문이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고, 먹고 살아야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되기 때문이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내가 돈을 얼마 더 벌었어야 했는데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해 아쉽다거나, 승진을 더 했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해서 한이 다 거나, 회사를 더 키우고 사회적인 명예를 더 얻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한다고 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거의가 다

“내가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너무했다, 사랑한다.” 등 자기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었다고 한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삶만이 우리를 삶에 종착점에서 후회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7~8)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기 질투 미움 등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야고보서3:13~18. 신약374)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또한 미움과 원망 불평을 버리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 하게 된다.

물론 연약한 인생들이라 순간순간 부패한 성질에 사로잡혀서 분노 다툼 미움 등에 자신을 더럽힐 때도 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부패한 성질을 회개하고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이란 이름의 안경을 통해 주위 사람을 보게 되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게 되어가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9~11)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잘한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극하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야 어찌하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 “상대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전에 내 자신과 감정을 희생시켜 먼저 사랑해야 한다.”

사랑을 하되 “상대의 잘못까지도 덮어주고 관용할 때까지 사랑해야 한다.”(베드로전서4:8. 신약381)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잠언17:9)

이제 다시금 우리 마음과 눈에 사랑이란 안경을 쓰자 !!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만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해주며 후회 없게 해 준다.

집에서도 서로 사랑하자 ! 사회생활에서도 먼저 사랑하자 ! 교우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자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31 (새 찬송가 2, 67)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

◎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인하여

◎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 아 멘 -

찬 송 : 414 (새 찬송가 293)

기 도 : 김정한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요한1서 4 : 7 ~ 12 신약 392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08 (새 찬송가 289)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 섬기는 사람들 [ 5 월 안내 ]

남, 김정한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준자 이준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조상희 집사 (다음 공옥렬 집사)

기 도 : 최순덕 집사 (다음 정창주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이성혁 집사 (다음 유정숙 집사)

기 도 : 최순희 집사 (다음 이상재 장로)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후 3시 30분 ) 김정한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남 녀 각 전 도 회 월례모임

오늘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에 종전대로 각 실에서

남녀 각 전도회 월례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2. 화 요 전 도 모 임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 3. 수 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 4. 금 요 밤 기 도 회.

금요 밤(24일) 기도회는 베드로 남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 5. 헌 신 예 배 안 내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는 요한 남전도회 주관입니다.

### 6. 결 혼 식 안 내

김석진 집사 노인숙 권사님의 장녀 선영 양의 결혼예식이

5월 25일(토) 오후 1시 40분에 상무지구에는

w웨딩컨벤션 9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중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택



## 본문 말씀 요약 ( 5 / 26 ) 2013

제 목 : 정단방위는 참 믿음이 아니다.

성경말씀 : 마태복음 5 : 38 ~ 42

세상 법에, 정당방위(正當防衛)를 했을 때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면죄가 되고 그 잘못이 정당화된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정당방위를 했을 때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가책을 받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구약에 율법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여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그에 기준한 생활습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세상 법도 아니며 관습적으로 내려온 어떤 문화나 생활풍습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 하셨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며

### 1.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이는 단순히 뺨을 친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곧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함께 한 것이다. 그렇다 하여도 분해하지 말고 상대의 뺨을 똑같이 치려고 대들지 말고, 상대의 감정을 녹여 주기 위해 왼 뺨도 맞을 준비를 하고 돌려대라는 것이다.

### 2. 속옷을 취하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옷이니까 물질을 뜻하는 것이고, 속옷이니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내 물질 취하여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 사람이다. 그러나 속옷을 빼앗기려고 얹으려고 몸부림치거나 다투지 말고 원하는 그대로 주고,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이다.

### 3.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도 동행하라.

상대가 자신이 혼자 걸어서 외롭고 힘들기에 그걸 면해보고자 나에게 몸의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며 함께 걷기를 원한다. 오리면 2키로 미터쯤 되는 거리로 약 30분이 소요되는 거리다. 내 시간과 몸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 오히려 십리 곧 4키로 쯤을 동행하여 상대가 원하는 이상으로 상대의 외로움과 힘든 것을 달래주고 함께 해주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정당방위란 상대가 내 오른 뺨을 치려하면 안 맞으려 해야 하고 내 오른 뺨을 때릴 때는 나도 상대의 오른 뺨을 치는 것이다.

속옷을 취하여 내 것을 앗아가려 하고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려는 사람에게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비를 해야 하고, 내 것을 찾고 오히려 상대가 부끄럽도록 공격하는 것이 정당방위다.

오리를 함께 가자하는 사람에게는 못 간다고 거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그때 응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 첫째, 그대로 당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뺨을 치려하고, 속옷을 취하려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항거하려거나 거절하려 하지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그대로 당하고 그대로 적응하라는 것이다.

당하지 않으려 하고 응하지 않으려 하는데서 인간의 다툼과 고통은 더 커지고 또 다른 죄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하게 당해 주라는 것이다.

### 둘째, 상대가 원하는 것 이상 더 내어 주라는 것이다.

오른 뺨을 맞았는데 왼 뺨도 내어 주고, 속옷을 취했는데 겉옷까지 내어 주고, 오리를 가자하는데 십리를 가주어서, 상대가 원하는 것 이상 당해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 이상 응해주라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도 양심이 있는지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악을 행하려는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되어 제 2, 제 3의 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셋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대로 당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 이상 내어 주면, 당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되며 바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속 숨은 비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다.(롬12:19)

### 넷째,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롬8:16-18)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믿고 순종한 대로 되게 하신다.(계22:10-12, 마5:11-12) 우리의 현생은 길어야 백년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러나 현생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감당하면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

게하리라 하나님

세상들이처럼사랑하사독생

자를주셨

으니이는

저를믿는

자마다멸

망치않고

영생을얻

게하려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만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약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9 (새 찬송가 1, 29)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값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돌려대며

◎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را를 가게 하거든

◎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 주지 말라.

- 아 멘 -

찬 송 : 236 (새 찬송가 205)

기 도 : 목 사 (다음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5 : 38 - 42 신약 7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정당방위는 참 믿음이 아니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05 (새 찬송가 305)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 섬기는 사람들 [ 6 월 안내 ]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오경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택남

## 주일 오후 예배 ( 오후 2시 )

사 회 : 공옥렬 집사 (다음 임동순 집사)

기 도 : 정창주 집사 (다음 박종복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요 저녁 예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유정숙 집사 (다음 박영수 집사)

기 도 : 이상재 장로 (다음 김영님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헌신예배 안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요한 남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함께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 2. 화요 전도모임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 3.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 4. 금요 밤 기도회.

금요 밤(31일) 기도회는 요한 남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회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 5. 중국 단기선교

담임목사는 교단 선교부의 명으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중국 남쪽 광저우에서 베트남 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택



## 본문 말씀 요약 ( 6 / 2 ) 2013

제 목 : 원수를 잘못 안 사람들

성경말씀 : 갈라디아서 4 : 12 ~ 18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리(事理) 분별을 잘 못하고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본문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중에 한 예이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46-48년경)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은총을 깨달았을  
때는, 바울의 몸에 약함과 질병이 있었음에도 싫어하거나 멀리  
하지 않고,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따르며 순종  
하여 축복받을 믿음에 서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곳에서  
몇 년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  
와서 다른복음, 곧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야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별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걸 좋게 여겨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외에 다른 복음을 전  
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1:6-9)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처럼 여기며 따르던 바울을 싫어하고  
원수처럼 대하며 미워했다.(16절)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비록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신약시대  
사도들 중에 제일 전도에 역사를 많이 이루고, 신약성경 27권  
중 14권을 계시로 받아 기록했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  
하는데(고후12:14-15), 이런 사도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  
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여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한 것이다.

이는 사리 분별을 못한 것이며, 자기들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흑암에 갇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담의 아들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  
다가 죽였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마23:35)

동생을 원수로 여겨 죽인 카인은 인생 최초의 살인자로 흉악범이  
되어 자손만대로 저주를 받는 불행한 가문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자기의 충성스런 장군 “다윗”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나, 오히려 다윗에게  
서는 생명을 건짐 받는 은혜를 입었고,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여  
자기는 자살하고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벌을 받았다.

신약에서도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집사가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었으면 구원의 축복 곧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복락을 누리게 됐을  
것인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며 원수로 여겨 돌로 쳐  
죽였다. 그 결과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스데반을 죽여서 승리한 것 같  
은 유대인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이런 불행은 원수 아닌 사람을 원수로 잘못 알고 미워한 결과였다.

우리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원수를 바로 알고 있는가?  
원수가 아닌 사람을 원수로 잘못 알고 미워하며 살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1서 3:13-16 신391, 마태 5:21-24 신6)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첫째, 내 욕심이다.(야고보서 1:15) 신371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하느니라.”  
물욕 : 물질 돈에 대한 욕심, 정욕 : 정과 이성에 대한 욕심,  
사욕 : 명예 영광 권위 자존심 체면 출세 승진에 대한 욕심 등,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원수이다.(빌립보2:5-11)

둘째,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성질이다.(마가복음 7:21-23) 신65

사람의 속에는 부패한 죄악의 성질이 있다. 이것이 원수이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창4:7)

셋째, 마귀이다.(요한복음 8:44 신160, 에베소 6:12 신316)

마귀 사단 악령의 무리들은, 우리가 잘되는 것을 시기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충동하여 멸망 길로 끌어간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미혹이다. 이 원수를 바로 알고 물리쳐야 승리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

게하리라 하나님이

세상들이처럼사랑하사독생

자를주셨

으니이는

저를믿는

자마다멸

망치않고

영생을얻

게하려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http://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mailto: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46 (새 찬송가 2, 31)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내가 육체의 약함이 있어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나니

◎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나

○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 하나니

◎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 좋은 일에 열심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 멘 -

찬 송 : 40 (새 찬송가 79)

기 도 :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갈라디아 4 : 12 - 20 신약 306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원수를 잘못 안 사람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36 (새 찬송가 205)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6 월 안내 ]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임동순 집사 (다음 김정환 장로)

기 도 : 박종복 집사 (다음 이매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박영수 집사 (다음 곽영희 집사)

기 도 : 김영님 집사 (다음 김수호 집사)

말씀증거 : 홍의남 장로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후 3시 30분 )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 1. 월례제직회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예전대로 월례제직회로 모입니다.

### 2. 화 요 전 도 모 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 3. 수 요 은 혜 의 시 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 4. 금 요 밤 기 도 회.

금요일 밤(7일) 기도회는 바울 남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회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 5. 중 국 단 기 선 교

담임목사는 교단 선교부의 명으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 베 드로 야 외 친 교 모 임 에 함 께 하 십 을 바 랍 니 다.

일시 : 6월 8일(토) 오전 9시 교회에서 차가 출발합니다.

장소 :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옆 해당화 숲 길

대상 : 본 교회 출석 56세 이상 남자 혹은 부부를 모십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택



## 전 주 말씀 요약 ( 6 / 2 ) 2013

제 목 : 원수를 잘못 안 사람들  
성경말씀 : 갈라디아서 4 : 12 ~ 18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리(事理) 분별을 잘 못하고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본문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중에 한 예이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46-48년경)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은총을 깨달았을  
때는, 바울의 몸에 약함과 질병이 있었음에도 싫어하거나 멀리  
하지 않고,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따르며 순종  
하여 축복받을 믿음에 서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곳에서  
몇 년간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  
와서 다른복음, 곧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야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별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걸 좋게 여겨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외에 다른 복음을 전  
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1:6-9)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처럼 여기며 따르던 바울을 싫어하고  
원수처럼 대하며 미워했다.(16절)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비록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신약시대  
사도들 중에 제일 전도에 역사를 많이 이루고, 신약성경 27권  
중 14권을 계시로 받아 기록했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  
하는데(고후12:14-15), 이런 사도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  
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여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한 것이다.  
이는 사리 분별을 못한 것이며, 자기들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흑암에 갇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담의 아들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  
다가 죽였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마23:35)

동생을 원수로 여겨 죽인 카인은 인생 최초의 살인자로 흉악범이  
되어 자손만대로 저주를 받는 불행한 가문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시울”은 자기의 충성스런 장군 “다윗”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나, 오히려 다윗에게  
서는 생명을 건짐 받는 은혜를 입었고,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여  
자기는 자살하고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벌을 받았다.

신약에서도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집사가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었으면 구원의 축복 곧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복락을 누리게 됐을  
것인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며 원수로 여겨 돌로 쳐  
죽였다. 그 결과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스데반을 죽여서 승리한 것 같  
은 유대인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이런 불행은 원수 아닌 사람을 원수로 잘못 알고 미워한 결과였다.

우리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원수를 바로 알고 있는가?  
원수가 아닌 사람을 원수로 잘못 알고 미워하며 살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1서 3:13-16 신391, 마태 5:21-24 신6)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첫째, 내 욕심이다.(야고보서 1:15) 신371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하느니라.”

물욕 : 물질 돈에 대한 욕심, 정욕 : 정과 이성에 대한 욕심,  
사욕 : 명예 영광 권위 자존심 체면 출세 승진에 대한 욕심 등,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원수이다.(빌립보2:5-11)

둘째,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성질이다.(마가복음 7:21-23) 신65

사람의 속에는 부패한 죄악의 성질이 있다. 이것이 원수이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창4:7)

셋째, 마귀이다.(요한복음 8:44 신160, 에베소 6:12 신316)

마귀 사단 악령의 무리들은, 우리가 잘되는 것을 시기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충동하여 멸망 길로 끌어간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케 하는 것은 다  
마귀의 미혹이다. 이 원수를 바로 알고 물리쳐야 승리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짐

진자들이

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

게하리라 하나님

세상들이처럼사랑하사독생

자를주셨

으니이는

저를믿는

자마다멸

망치않고

영생을얻

게하려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이니 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성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익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 전 주 말씀 요약 ( 6 / 16 ) 2013

제 목 : 하나님의 기뻐하심

성경말씀 : 사도행전 1 : 6 ~ 11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유언으로 가상철언을 하셨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과 천국 복락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천국으로 승천하시고자 한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 최후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누구 어떤 사람든지 이 세상을 떠나며 최후적으로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최후적으로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 1)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요,
- 2)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꼭 이루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며,
- 3)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내용의 일들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10일후 오순절 절기에 보혜사 성령님의 세례 곧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체득했고 한 번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만방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세계만방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믿을 때 한 번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이어서 우리가 할 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라 하셨으며.(시126:5~6, 구897))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 하셨다.(사52:7. 구1031)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일을 감당하고 이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축복이 되며 상급이 되는 일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

- 1,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값을 감당하신 것이며,
- 2,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은 곧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며,
- 3, 믿는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하면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며,
- 4, 세상에서 말씀을 바로 익혀 순종하고 증인의 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늘에 찬란하고 영광스런 축복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행하고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은, 인종이나 국가의 차별이 없이 세계만방 모든 민족이며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그렇기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교단이 비교적 작은 교단이면서도 해외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은 이런 이유이며, 우리가 이번에 중국 단기 선교를 한 것도 주님의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한 것이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하는 일은 여러 과정이 있다.

- ① 자신이 직접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 ② 물질로 후원하여 감당하는 것이다.(빌4:15-19, 신322)
- ③ 기도로 후원하여 감당하는 것이다.
- ④ 증인의 일, 전도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 면에서 돕는 것이다.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며,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하시는 일이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자는 그 발까지도 아름답다 하셨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증인의 일을 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자 !!



## 주 일 낮 예 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약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2. 13 (새 찬송가 3, 6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쭙기를
-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 하니
-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 너희의 알바 아니요,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어 가시니
- 구름이 저희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찬 송 : 88 (새 찬송가 88)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사도행전 1 : 6 ~ 11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하나님의 기뻐하심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532 (새 찬송가 483)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예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 6 월 안내 ]

남, 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 주 일 오후 예 배 ( 오후 2시 )

사 회 : 정기화 집사 (다음 채해경 집사)

기 도 : 노재덕 집사 (다음 이운교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수 요 저 녁 예 배 ( 저녁 7시 30분 )

사 회 : 이성희 집사 (다음 채현숙 집사)

기 도 : 홍희석 집사 (다음 정종모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 유, 초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본당 )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 중, 고 등 부 예 배 (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 사무엘하 )

## 청 년 부 예 배 ( 주 일 오후 3시 30분 )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금 요 밤 기 도 회 ( 밤 8시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교 회 소 식 \*\*\*\*\*

### 1. 중국 단기선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장로님들과 많은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맺히는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 2. 화 요 전 도 모 임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 3. 수 요 은 혜 의 시 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 4. 금 요 밤 기 도 회.

금요 밤(21일) 기도회는 마리아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 5. 남 녀 각 전 도 모 임

오전예배 후 12시 10 분에 예전대로 각 실에서

남 녀 전도회 월례회를 갖습니다. 함께하시기 좋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택

☺ 정제인 조경아 님

봉선동 모아